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14】

해방 아닌 해방공간의 침묵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天皇의 무조건 항복 방송과 함께 조선반도朝鮮半島 3천리 강산을 철통같이 억누르고 있던 일제의 세력과 그 군경 병력이 무장을 거두고 물러났다. 동시에 감옥과 유치장留置場의 문이 열리고 방송국의 허위선전도 중지되었다. 일본의 신사神社로 통하는 길에 인적이 끊기고 한강의 푸른 물도 비로소 제빛을 찾아 순류順流하는 듯했다고 김시현과 권애라의 전기를 쓴 이종률은 기술하고 있다.

8·15와 함께 서울 경성헌병대京城憲兵隊 구치감拘置監에 있던 김시현도 동고하던 사람들과 함께 풀려났다. 그는 우선 서울 장안 여사旅舍의 한 방을 빌어 들어가 병고에 지친 몸을 눕히고 쉬기부터 하였다. 그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누운 김시현의 가슴에는 감회와 전망의 실마리가 구름같이 피어올랐다. 일제의 퇴각과 패망은 확실한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자력으로 아무것도 전취戰取한 게 없는 이 민족에게 완전한 해방이 이룩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외세와 내부분렬의 역학관계에 따라 전개될 정치상황에는 예측불허의 풍운이 내포되어 있다. 이제 무엇보다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경솔히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김시현은 굳게 하였다.

그러한 김시현에게 어느날은 국민당國民黨의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 당수가 찾아왔다. 민족적인 정당으로서의 국민당을 함께 지도해 나가자는 권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안재홍은 김시현보다 8세가 연하인 1891년 평택 출생으로 기독청년회 중학부를 거쳐 동경 와세다대早稻田大를 나오면서 학생운동을 하였다. 귀국해 언론계에 종사하다 상해上海로 망명해 이회영李會榮·신채호申采浩 등이 만든 동제사同濟社에서 활약하다 귀국해서는 중앙고보中央高普 교감·기독교청년회 교육부 간사 등을 지내고 3·1운동 후에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가입하여 임시정부의 연통부聯統府 역할을 하다 3년 옥고를 치렀다. 1923년 시대일보時代日報를 창간해 논설위원을 지내고 1924년에 조선일보로 들어가 주필·부사장·사장을 지내는 동안 신간회新幹會 총무간사를 겸하다 8개월간 투옥되고 사학자로 많은 연구에 몰두하면서 1936년에 임시정부와의 활동이 탄로나 2년 복역하고 1942년에 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되었다. 1945년 4월에 여운형呂運亨이 일본의 총독부당국과 조선의 치안권 인수 문제를 놓고 사전 접촉을 벌일 때, 안재홍은 그 대안으로 우리 민족대회를 열어 그 결의를 받아서 하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8·15광복을 맞아서는 여운형이 즉각 탄생시킨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 건준建準이 공산주의자들에 좌우되자 광복 다음달인 9월에 독자적으로 국민당을 결성해 그 당수가 되었다. 그뒤 한국독립당에 들어가 중앙위원이 되고,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 한성일보漢城日報 사장, 비상국민회의 의원·민주의원 의원·좌우합작위원회 위원·입법의원을 거쳐 1947년 미군정의 민정장관民政長官이 되어 한국인 체계의 행정기반을 쌓았다. 1948년 정부수립 후 평택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50년 9월 21일에 납북되어 1965년 3월 1일에 이북에서 사망했다. 이러한 안재홍이 김시현을 찾아온 것은 그가 국민당을 만든 1945년 9월 중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때에 김시현은 안재홍을 모르는 사이가 물론 아니었겠으나 시국이 누구와 쉽게 손잡고 나설 때가 아니어서인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를 찾아 협조를 구한 것은 건국준비위원회의 몽양夢陽 여운형 위원장이었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봉대운동奉戴運動의 영수領袖인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가 찾아와 중국의 중경重慶에 있는 임시정부를 '받들어 모셔오는' 일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김시현은 어느 쪽에도 쉽사리 몸을 내놓지 않았다. 어떤 것은 그 뜻에 맞지 않고 어떤 것은 실현성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는 사이 병약한 몸이나마 그냥 누워있을 수만은 없어 동지들과 상의하여, 우선 해외에서 귀국하는 동포를 맞아들여 주선해주는 하나의 정치적 사회사업단체라 할 수 있는 고려동지회高麗同志會를 만들고 그 회장에 선임되었다. 여기에는 우선 만주에서 출옥해 귀국하는 그 아내 권애라와 아들 김봉년이 그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셈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1945년 10월이었다. 이때에 김시현은 금남영생고아원錦南永生孤兒院도 세워 그 설립자가 되어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동양공과대학東洋工科大學의 학장學長을 맡아 후학을 기르는 일에 뜻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어 보게도 되었다.

그 아들 김봉년이 1989년에 한 일간신문과의 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18세 때 북경北京에서 아버지를 만났으나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한 달 동안이나 선생님이라 불렀다'고 회고하고 '해방 뒤에야 아버지·어머니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봉년이 밝힌 '해방후'란 바로 이 무렵 1945년 9월 전후를 가리켰을 것이다.

김시현은 이렇게 해방직후 정치일선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민족자주연맹民族自主聯盟이라는 단체의 중앙위원으로 이름을 주기도 하고 좌우합작위원회左右合作委員會라는 곳의 확대추가위원이 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이러는 사이 중국 국경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이 귀국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임정의 부주석副主席이며 원로 의열단원으로서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의 집행위원장인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도 귀국하였다. 김시현은 이 김규식과 가장 친한 사이로서 호형호제하는 처지였다. 김시현은 김규식과 서울 마포麻浦의 모처에서 만나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은 임정의 국무위원이며 조선민족혁명당의 감찰위원장監察委員長인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의 조선 정국은 우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남쪽은 다시 대별하여 백범白凡 김구金九를 주석主席으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중심의 세력과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산파역이 되어 선포가 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방향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김시현은 남조선에서의 이와 같은 대립 상태가 불상사를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는 이시영과 김규식의 생각도 같아서 김시현 등 기타 지도자들과 같이 임정세력과 인공세력을 함께 지양적止揚的으로 해체시켜 하나로 귀일되게 하는 민족통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시영·김규식·장건상張建相·김성숙金星淑·김원봉金元鳳·성주식成周寔 등의 임정요인이 먼저 임정에서 탈퇴하고, 이어 인공을 해체시키면서 동시에 임정도 해체하는 순서의 민족통일정권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일은 이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임정 탈퇴 인물중에서 좌파인 김원봉과 성주식은 인공 가운데의 좌파구성세력인 박헌영朴憲永 일당과 가까워지고, 송진우宋鎭禹·김성수金性洙·서상일徐相日·장덕수張德秀·조병옥趙炳玉·장면張勉·허정許政 등이 중심인 한민당韓民黨은 임정봉대운동을 취소하고 미군정美軍政에 협력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밖에도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는 혼란상황이 이시영·김규식·김시현이 염원하는 바의 민족적 통일정권 수립의 꿈을 무산시켰다.

이러는 가운데 사회의 혼란과 테러가 만연되어 1945년 12월 30일에는 고하 송진우가 피살했다. 송진우는 임정봉대운동을 주도하며 김시현을 찾아왔던 인물이므로 그 피살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평생을 동아일보와 함께해온 송진우는 김시현보다 7년 뒤인 1890년에 전라도 담양潭陽에서 나서 의병장 유학자儒學者 기삼연奇參衍에게 수학하고 17세에 영학숙英學塾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며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와 사귀었다. 18세에 일본으로 가 동경의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금성錦城중학교·와세다대早稻田大·메이지대明治大 등을 다니면서 유학생친목회 총무를 맡았는데 김시현과는 메이지대 법학과의 동문이었다. 귀국해서는 중앙학교中央學校의 교감·교장이 되고 3·1운동 때는 현상윤玄相允·최린崔麟·최남선崔南善 등과 함께 긴밀히 활약하고 투옥되어 1년반의 옥고를 겪었다. 32세 때 김성수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의 사장이 된 이래 투옥과 정간·해직·복직·폐간 등을 반복하다 해방을 맞았고 1945년 9월 7일에는 임정을 맞아들이기 위한 국민대회준비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장이 되고 그 열흘 뒤인 9월 17일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이 결성되자 당수격인 수석총무首席總務가 되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동아일보가 복간되어 그 8대 사장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해방정국에서 차지하는 송진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12월 28일에 그는 신탁통치, 즉 국제연합에서 조선을 신탁받아 통치해주는 문제로 미 군정장관軍政長官 아놀드Arnold 소장과 회담을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반탁시위가 정당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2월 29일 밤에는 백범白凡 김구金九가 묵어 살고 있는 서대문의 경교장京橋莊에 가 김구를 비롯한 임정요인들과 회담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송진우는 아놀드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미군정청과는 충돌을 피하면서 국민운동으로 반탁反託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리고 심야에 집으로 돌아온 송진우는 이튿날 새벽 6시에 한현우韓賢宇 등 6인의 습격을 받고 원서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이것은 좌파가 아닌 우파의 테러였다. 임정요인과 한민당을 싫어하는 우익세력의 테러인데 그 수법이 실로 악랄한 것이었다.

송진우에 이어 2년 뒤인 1947년에는 한민당의 대표적 이론가 설산雪山 장덕수張德秀가 현직 경찰관 암살범에게 피격하여 사망하였다. 1895년에 황해도 재령載寧에서 출생한 장덕수는 빈농에 편모슬하로 자라 진남포鎭南浦의 한 기관 급사給使로 들어가 강의록으로 공부해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早稻田大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돌아와 상해上海로 망명했다. 김성수·송진우 등과 친교하였고 3·1운동 때는 그 모의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일경에 잡혀 전라도의 하의도荷衣島에 거주제한을 당하는 유배형을 살다가 유명한 여운형呂運亨의 '동경회담東京會談'에 통역으로 발탁되어 풀려났다. 1920년에 26세로 동아일보의 초대 주필主筆이 되어 명문의 창간사創刊辭를 내며 변설辯說과 문재文才를 날리다가 1923년에 미국에 가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받고 귀국해 보성전문普成專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36년에 동아일보 부사장으로 언론계에 복귀했다가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강제폐간되어 은거하던 중 일제말기에는 시국대응전조선사상보국연맹時國對應全朝鮮思想報國聯盟 경성분회장京城分會長과 임전보국단臨戰報國團 준비위원 등이 되어 친일행위에 동원되기도 하다가 해방을 맞아서는 송진우·김병로金炳魯 등과 한민당을 창당하여 외교부장·정치부장을 지내면서 보수우익진영의 대표적 논객으로 활약하였다. 이렇게 송진우와 장덕수를 살해한 테러는 당시 광범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던 한민당의 중추인물을 제거한 행위였다.

장덕수가 살해된 같은 해 1947년 7월 19일께는 서울의 혜화동 로터리에서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이 19세의 미성년 한지근韓智根의 권총 2발을 맞고 절명했다. 여운형은 호방담대하면서도 관용적이고 인자한 풍운객이라는 호평의 인물로 이때 62세였다. 여운형은 김시현보다 3년하로 1886년 경기 양평에서 났다. 15세에 배재학당培材學堂에 들어가고 1년만에 흥화학교興化學校로 옮겼다가 다시 관립 우체학교郵遞學校를 다니고 23세에 기독교를 믿게 되어 이듬해 기독광동光東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1911년에는 평양 장로교신학교에 입학했다. 1914년에는 중국 남

12면으로 계속